

## 《破閑集》에 보이는 사상적 경향

---

저자 (Authors)	蔡尙植
출처 (Source)	<a href="#">진단학보</a> , (73), 1992.6, 197-203 (7 pages) <a href="#">THE CHIN-TAN HAKPO</a> , (73), 1992.6, 197-203 (7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진단학회</a> The Chin-Tan Societ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75973">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75973</a>
APA Style	蔡尙植 (1992). 《破閑集》에 보이는 사상적 경향. 진단학보, (73), 197-20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3 17:54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破閑集》에 보이는 사상적 경향

蔡 尙 植

(釜山大 教授)

## 1.

《破閑集》이 詩話集의 성격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담긴 사상적인 경향을 추적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작업은 《破閑集》의 저자인 李仁老(1152~1220)의 사상체계를 검토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인로의 다른 저술들이 현전하고 있다면 의외의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본 발표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에 있어서 어느 한 시대의 사상과 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상 그 자체에 대한 구명도 중요하지만 특정사상의 그 사회에서의 기능이 어떠한가 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정사상의 이해는 당시의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인식이 전제가 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인로가 생존했던 12세기 중반에서 13세기 초반의 시기는 고려 전기의 사회질서가 서서히 해체되어 가는 변동기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破閑集》이 비록 그가 소일하기 위하여 남긴 詩話集으로 평가되긴 하지만 그러한 중에도 당시 사회에 대한 그의 입장과 관련하여 표방한 사상적인 경향성은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우선 이인로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출신과 성장 과정을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그가 생존한 시기가 정치·사회적 변동기라는 점과 기록상의 오류로 인하여 생긴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필요하다. 이인로는 1152년(의종 6년)에 출생했으며 字는 眉叟, 初名은 得玉, 號는 雙明齋였다. 그의 家系는 慶源李氏로서 고려 중기 문벌귀족 중의 대표적인 집안이라 할 수 있다. 그의 가계는 경원이씨 증 子淵系가 아닌 子祥系로서, 그는 子祥의 둘째 아들인 顓의 증손이며, 오의 아들인 彥林의 孫이다. 이언립에게는 《仁川李氏世譜》에 의하면 光瓘(初名 元休)과 伯仙이 있었다고 하나, 백선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sup>2)</sup> 그리고 이언립은, 이인로의 아들인 世黃이 “나의 先人은 大

1) 李仁老에 대한 역사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慶源李氏 家系에 대한 검토에서 약간의 언급이 있었을 뿐 개별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단지 한문학 분야와 최근에 발표된 다음의 논문 등이 주목된다.

徐首生, 〈竹高七賢의 領袖 眉叟文學〉, 《高麗朝漢文學研究》, 1971.

李興鍾, 〈李仁老의 思想世界〉, 《歷史教育》 46, 1989.

2) 李萬烈, 〈高麗慶源李氏 家門의 展開過程〉, 《韓國學報》 21, 1980, p.23에서 伯仙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가 무신란 때에 被誅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金天德 4年 壬申(1152년)에 출생하여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大叔인 華嚴僧統 寥一이 양육하여 항상 좌우에 두고 훈계하여 가르치기를 부지런히 하여 三墳과 五典, 諸子百家를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sup>3)</sup>라고 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요일을 포함하여 3명의 아들을 두었다. 그리고 光瑠의 경우 그의 아들로 惟仁, 惟諠, 惟諒, 惟卿, 惟溫 등이 있는 것으로<sup>4)</sup> 보아 이인로는 이언림의 아들 가운데 백선의 아들인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인로는 기록상 그의 생애 중에 사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생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할까라는 의문이다. 기록의 하나는 이인로가 어려서 부모를 여의게 되어 그의 숙부인 寥一이 양육하였다는 《破閑集》 발문의 기록과, 또 하나는 “정중부난에 머리를 깎고 피신하였다가 난이 평정된 후 환속하였으며, 명종 10년(1180년)에 魁科에 뽑혔었다”<sup>5)</sup>라고 하여 19세에 정중부난(1170년)에 의해 피신차 승려가 되었다는 《高麗史》 열전의 기록이다. 그러나 후자의 기록은, 이인로의 아들인 世黃이 “을미년(1175년) 여름에 豹榜에 이름이 오르고 이듬해 가을에 賢關(太學)에 들어가 考藝試에 연이어 합격하였으며 庚子年(1180년) 봄 과거에 장원하여 명성이 士林에 떨쳤다. 이에 妻父인 崔永濡가 賀正使로 金에 갈 때 書狀官으로 일행에 참여하였다”<sup>6)</sup>라고 하여 정중부난이 정치적으로 거세된 1179년 이전에 이미 初試에 이어 太學에 들어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 같다. 추측컨대 이인로가 그의 숙부인 요일에게 양육된 것을 정중부난과 관련시킨 나머지 후대의 《高麗史》 찬자들이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이인로의 父인 伯仙을 정중부난 때 제거된 인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면 19세나 된 이인로를 《破閑集》 跋文에 “어려서 부모를 여의게 되자”라는 식으로 표현했을 리가 없다. 한편 이인로의 숙부인 光瑠가 1170년 정중부난이 일어나던 해에 同知樞密院使에 올랐다가 정중부난 때에는 그의 溫謹함 때문에 保身케 되었다는<sup>7)</sup> 기록으로 미루어도 《高麗史》의 기록처럼 이인로의 가계는 정중부난에 의해 제거된 집안이 아니며 또 이인로의 삭발도 무신란 이전이며 그 동기도 그의 부모가 일찍 죽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단지 《高麗史》의 기록은 그의 어릴 때의 불우한 모습을 정중부난과 관련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의 숙부 寥一<sup>8)</sup>을 통해서 이인로가 정치적으로 거세된 배경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寥一은 화엄종의 흥왕사 승통으로서 盤龍寺<sup>9)</sup>를 개창했으며, 정중부난 때에는 정

3) 《破閑集》 跋文, 「我先人生大金天德四年壬申 早喪考妣 無所依歸 有大叔華嚴僧統寥一 撫養之 常不離左右 訓誨勤勩 三墳五典 諸子百家 莫不漁獵」

4) 《高麗史》 권 95, 李子淵 附 李光瑠傳.

5) 《高麗史》 권 102, 李仁老傳, 「鄭仲夫之亂 祝髮以避 亂定歸俗 明宗十年 擢魁科」

6) 《破閑集》 跋文, 「至乙未夏 題名豹榜 翌年秋月 踵入賢關 連捷考藝 又庚子春場 首登龍門 聲動士林 及冰清司業崔公永濡 爲賀正使 以書狀官 預于一行」

7) 《高麗史》 권 95, 李光瑠傳, 「鄭仲夫之亂 以溫謹獲全 明宗初 參知政事 加中書侍郎門下平章事 權執銓衡」

8) 寥一에 대한 기록은 《破閑集》 跋文, 《東文選》 권 84 <送盤龍如大師書>, 《高麗史節要》 권 13, 明宗 27年 9月條, 《破閑集》 권 中 등에 보인다.

9) 《東國輿地勝覽》 권 29, 高靈縣 佛宇條.

치적 파동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다가, 최충헌이 등장한 1196년 이후 1197년 9월에 최충헌을 제거하기 위한 모의에 관련되어 거세된 인물이다. 이러한 요일의 경우를 두고 볼 때 화엄종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이인로가 “명종 10년(1180) 魁科에 뽑히어 桂陽管記에 補해 지고 直史館으로 옮겨 史翰에 출입한지 무릇 14년이 되었으며 당시의 名儒 吳世才, 林椿, 趙通, 皇甫抗, 咸淳, 李湛之와 더불어 忘年友를 맺어 詩酒로써 서로 즐기니 세상이 江左의 七賢에 비교하였다”<sup>10)</sup>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관직에서 물러나 소위 江左六賢으로 불리운 점은 혹 최충헌이 등장한 후 요일이 제거된 사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다시 말하면 최충헌이 집권한 이후, 최충헌과 적대적이던 화엄종이 위축되면서 화엄종과 밀착되었던 이인로의 집안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잃게 되고 자연 이인로도 중앙정계에서 거세된 것 같다.

## 2.

이인로가 남긴 시문집은 《銀台集》 20권, 《後集》 4권, 《雙明齋集》 3권, 《破閑集》 3권 등인데<sup>11)</sup> 현존하는 것은 《破閑集》 뿐이다. 주로 詩作은 《銀台集》에, 耆老會에 참여하여 남긴 雜著는 《雙明齋集》이라고 하였던 듯하다. 현재 《破閑集》 외에는 전하지 않으나 다른 저술의 내용은 《東文選》에 이인로의 많은 시문이 수록되어 있어<sup>12)</sup> 그 편린을 접할 수 있다.

다음은 詩話集의 체제를 지닌 《破閑集》이 전반적으로 어떤 성격과 특징을 지닌 것인지 간략하게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破閑集》은 우리의 문학사에 詩話文學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인로가 詩話라는 새로운 양식을 도입하여<sup>13)</sup> 이러한 시화집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많은 독서량과 한 차례 使行을 수행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또 이러한 詩話의 형식으로 이인로가 글을 남긴 것도 그만큼 역사적 필연성이 있었다고 본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破閑集》은 忠·孝를 바탕으로 王道主義와 文治主義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무신집정기하에서 經史類의 직접적인 글로 표현할 수 없었던 이인로로서는 시화의 형식을 원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破閑集》을 남긴 이면에는 문신들의 조공과 변심을 항상 염려하여 신경과민의 상태에 있었던 무신체제에서 經史類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인해 입

10) 《高麗史》 권 102, 李仁老傳, 「明宗十年 擢魁科 補桂陽管記 遷直史館 出入史翰 凡十有四年 與當世名儒 吳世才 林椿 趙通 皇甫抗 咸淳 李湛之 結爲忘年友 以詩酒相娛 世比江左七賢」

11) 《高麗史》 권 102, 李仁老傳.

12) 《東文選》에 수록된 李仁老의 저작을 살펴보면 詩문 84수, 산문 15편을 남기고 있다(徐首生, 앞의 논문, p. 33 참조).

13) 중국의 경우 南北朝時代의 梁의 鍾嶸의 詩評을 필두로 하여 劉勰의 《文心彫龍》, 盛唐時의 僧皎然的 《詩式》이 있고 司空圖의 《詩品》이 있었으나 전문적인 詩話로는 宋代 歐陽修의 《六一詩話》가 있었다고 하여 《六一詩話》와 《破閑集》을 연결시킨 견해도 있다(權五惇, 〈破閑集〉 解題, 《韓國의 名著》, 1973 참조).

게 될 화를 피하면서 자신과 다른 문신들의 사고활동을 기록하려는 숨은 노력의 소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破閑集》은 일반 詩話에서는 범하여서는 안될 즉 자신의 시를 기재하여 평하면서 자신의 글재주를 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특히 북송의 蘇軾(1036~1101)과 黃庭堅(1045~1105)의 시를 모방하는 기풍에 젖어 있다. 이러한 점은 李奎報, 崔滋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는데<sup>14)</sup> 무신란 이후의 지식인들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점에서 詩話라는 형식을 도입한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이를 고려사회의 문화풍토로 정착시키지 못한 한계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破閑集》에 수록된 詩話의 대부분이 문벌귀족체제하에서 활약하던 문신들의 것이라는 점에서 이인로의 기본적인 입장이 무신란 이후의 사회변동 속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기보다 복고적인 수준에 머물렀음을 지적할 수 있다. 《破閑集》에 보이는 인물 중 신라의 金庾信이나 崔致遠, 金生 등도 있으나 대부분 고려 중기 문벌체제하에서 활약했던 인물이며, 심지어 정중부난 때에 희생된 金敎中, 劉藏, 韓彥國, 李知深 등의 시화를 수록하고 있는 점은 이인로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체제가 문벌체제 즉 복고적인 입장에 머물렀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인로 다음 단계에 출현한 李奎報, 崔滋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sup>15)</sup>

### 3.

이인로의 사상체계를 파악하기는 극히 힘들다. 무엇보다도 그가 남긴 저작 중 시화집의 성격을 지닌 《破閑集》만이 남아 있고 또 《東文選》에 수록된 저작이 대부분 시라는 점에서 볼 때 그의 사상체계를 심층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인로가 유학적 성향 속에서 성장한<sup>16)</sup>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의 사상체계는 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한편 일시 화엄종 계통의 승려생활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불교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가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江左七賢’으로 불린 점으로 보아 현실 도피적인 성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우선 그의 유교적인 성향을 살펴 보기로 한다. 이인로가 《破閑集》과 《東文選》에 남긴 시를 통해 볼 때, 그가 비록 杜甫라든가 唐宋八大家로 지칭되던 인물들을 칭송하고 모방하려는 경향을 띠었으나 이미 義理, 心性化의 방향으로 전환되어 갔던 宋代儒學과는 평행되던 귀족적인 翰墨風類의 고려 중기 유학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그의

14) 車柱環, 〈崔滋의 詩評〉, 《東亞文化》 9, 1970.

15) 李佑成, 〈高麗 武臣執權下의 文臣知識層의 動向〉, 《영남대학교 개교30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77; 《韓國의 歷史像》, 1982에서 李仁老와 李奎報를 최서정권에 협력한 인물로 동일시하고 있으나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16) 《破閑集》 권 下, 「僕八九歲 隨一老儒習讀書」 및 주 3)의 내용 참조.

시가 주로 자연의 경관이나 문장의 기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의종대에 극성을 이룬 향락풍의 분위기를 더욱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점은 이인로가 고려 중기의 문벌귀족 가문의 출신이라는 스스로의 체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그가 《破閑集》에서 평하고 있는 시의 작자들도 대체로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이인로는 고려 중기의 문벌귀족체제하에서 유학의 계승자로서 시작과 시평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정치철학면에서도 그의 그러한 입장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유학이념에 바탕한 文治主義와 王道主義가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상의 한계로 심층적으로 밝힐 수 없는 것이 유감이지만 이인로의 유학사상에서 집권체제를 구축하려는 최승로와 같은 활기나 또 유학이념으로 다른 사상이나 사조를 포괄하려던 김부식과 같은 자신감은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의 유교적 정치사상을 강력히 주창하지도 못했으며, 단지 이미 문벌체제 내부의 모순에 의해서 이자결난, 무신란, 농민항쟁 등으로 붕괴되기 시작했던 고려 중기 사회로 복귀하려는 태도로 임할 뿐이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당시 사회에 있어서 이인로의 유학사상이 가졌던 한계라고 하겠다. 물론 《破閑集》에 부분적으로 고려 중기의 정치상황을 고발하는 내용의 시를 담고 있으나<sup>17)</sup>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느낌은 주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이인로의 유학사상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른 계통의 사상적 경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破閑集》에서 유학사상 외에 첫째로 드러나는 것은 불교적인 경향이다. 이인로가 그의 숙부인 화엄종 계통의 龜一에게서 양육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불교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으며, 또 많은 승려의 시와 일화를 수록하고 있고 한편 이인로 자신도 불교적 색채가 짙은 시를 남기고 있다.<sup>18)</sup> 물론 단편적인 자료만으로 그의 불교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알 수 없으나, 본래 철학적·종교적 논리는 다른 사상 체계에 맡겨 둬으로써 사상적으로 이율적인 구조의 성격을 지닌 고려유학으로서는 정치·사회적 상황에 의해 은둔적 성향을 지닐 수밖에 없었던 이인로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그러한 산물이 그의 불교적인 성향에로의 심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가 관심을 가졌던 불교의 내용은 어떠하였을까. 《破閑集》과 그의 성장 과정에서 유추되는 것은 다분히 화엄사상으로 귀착되지만 이에 덧붙여 음미해야 할 점은 그가 12세기 이래로 당시 고려 지식인 세계에 유행하던 선사상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선사상에 심취한 대표적인 인물인 李養女과 郭瑊 등을 《破閑集》에 수 차례 소개한 점도 주목되지만 특히 “惠弘의 《冷齋夜話》를 읽어 보니 심중칠팔은 그가 지은 것이다”<sup>19)</sup>라고 한 기록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혜홍에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7) 李興鍾, 앞의 논문, pp.37~46 참조.

18) 주로 《東文選》에 많이 수록되어 있다.

19) 《破閑集》 권 上 참조.



다음은 둘째로 이인로는 불교 이외에 道家的인 분위기에도 상당히 깊은 이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의 현실도피적인 성향 자체가 그러하지만 그의 시에 莊子의 문구를 인용한 부분이 적지 않으며 특히 〈和歸去來辭〉, 〈紅桃井賦〉, 〈崔太尉騎牛出遊〉, 〈逍遙堂〉 등에는<sup>21)</sup> 道家的 색채를 짙게 풍긴다. 그리고 이 시기의 도가는 신선사상과도 연결되므로 이인로는 전통사상이나 전통문화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려 중기 유학의 분위기에 있으면서도 전통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는 문벌귀족의 체제를 지향하려는 같은 입장이면서도 김부식과는 대조적이며, 다음 단계에 출현하는 李奎報, 崔滋와 어느 정도의 사상적인 연계를 생각하게 한다.

이상에서 이인로의 유교 이외의 다른 사상적인 경향을 살펴 보았다. 그러면 몇 가지 제기한 문제점을 요약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물론 이인로가 유학자로서 다방면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점, 즉 불교의 철학적 영역에 접하려는 노력과 道家的인 성향에서 전통문화와 신앙에 호의를 가지려는 태도 등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그 어느 것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여 완성시킨 것이 없다는 점이다. 철학적인 영역에서는 정교한 논리체계를 갖출 정도로 발전시킨 것이 없는 것 같으며, 전통신앙이나 문화에 대해서도 일관된 체계로 정리하여 발전시키려는 정신이 결핍되어 있었던 것 같다. 바로 이러한 점은 그가 유학의 입장에서 다른 사상적인 경향을 정리하려는 의도에서 심취한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만족할 수 없었던 생활환경과 정신적인 浮遊를 통해 자연과 가까이 할 기회를 가졌던 결과의 산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그가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禪思想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접한 산물일 것이다.

둘째, 이인로가 사상적으로 편력하는 과정에서 특히 그의 초년과 만년의 방랑생활에서 많은 농민, 천민의 항쟁을 접하였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익명의 詩作 한 수만 소개할 뿐 거의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은 그의 출신 자체가 문벌귀족이라는 점, 또 그의 유학사상의 경향이 복고적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인로 자신의 사상적인 경향이 당시 기층 사회의 사회·경제적인 처지에 대해서 사상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데까지 진전될 수 없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셋째, 詩話文學의 효시로 알려진 《破閑集》의 경우 이인로가 禪思想에 관심을 가지면서 접한 宋代의 公案集 계통의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종래의 연구에서 당시 불교의 분위기를 경시하는 태도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

짧은 준비 기간과 《破閑集》에만 한정시켜 이인로의 사상적인 경향을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던 것 같다. 많은 지적을 참고하여 보완할 생각이다.

21) 《東文選》에 수록된 李仁老의 詩作 참조.